

7월의 양봉관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상 균

1벌꿀작황 및 꿀값 동향

금년 질 좋은 잡화꿀 생산되었으나 국내 경기 불황으로 판매업소/양봉농협(조합)에는 판매량이 감소되어 울상이며, 한국양봉조합에서는 대량(5,00드림)의 벌꿀 수매로 금년 판매소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질 좋은 잡화 꿀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판매량이 저조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입개방에 대비한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도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년 봄부터 6월까지 올해처럼 잡화꿀이 잘 난 적이 기억에 없을 정도로 잡화꿀이 생산되었다.

아카시아 꽃을 제외하고는 꽃이라고 생긴 것은 전부 꿀이 분비되었다고 생각한다.

꿀을 뜨기가 쉽지 않은 쪽제비싸리도 잘 났고 개웃나무나 감나무, 정금나무도 잘 났으며 때죽나무도 3회까지도 채밀이 가능했고, 더욱이 5월 말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감로꿀이 6월 하순까지도 계속 이어져 감로꿀이 올해처럼 많이 생산된 예가 없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밤꿀도 중부이남 지역에서는 2회까지도 채밀할 정도로 비교적 잘 생산되었다.

금년의 아카시아꿀 생산량은 평년작 이하지만 유례없는 잡화꿀이 생산되어전체적으로 평년작 정도의 벌꿀이 생산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양봉농협 공장에 들어온 꿀이 약 5,000드림 정도가 되고 있어 꿀값을 정해야 되는 조합 입장에서도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일부 양봉인들은 지난해 꿀 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지난해의 꿀 가격은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서의 가격이다 보니 접어두고 재작년 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중 경기나 꿀 판매동향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꿀이 잘 팔려서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을 정도의 최고 가격이 양봉인들에게 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다수 양봉인들이 잡화꿀이 잘 나서 좋아하지만 이 꿀이 잘 팔려야 잡화꿀이 잘 난 효과를 보게 되는데 고품질의 잡화꿀은 유통업계에서 판매되는 양이 예년으로 볼 때 많지 않다 보니 올해 생산된 잡화꿀을 팔기 위해서는 유

통업계에 있는 분들도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질이 낮은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업자가 없어야 하겠으며, 이를 막는 길은 전국의 양봉인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많은 량의 꿀이 이월되었다면 내년도 매취로 사주기가 생산농가들은 꿀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좋은 잡화꿀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하여 질이 낮은 벌꿀을 다량 생산하는 자를 목격할 시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 된 사람 중에 문제점이 많은 사람은 그동안 전화로 계속 설득하여 왔지만 질이 낮은 꿀을 매년 계속 생산하고 있어 선량한 양봉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 낮은 벌꿀을 생산 자제해 주길 당부합니다.

2. 장마의 대비

매년 6월말 경이 되면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게 된다.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보니 양봉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지만, 또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보니 비 오는데 작업하려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로얄제리하라 사양시키라 내검하라 증소하라 화분떡주라 할 일이 많지만 자동사양 설치를 해놓은 봉장에서는 사양만큼은 그리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오다보니 벌통이 비를 맞아 썩게 되므로 비를 맞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벌통 위에 보온덮개나 천막지, 또는 스티로폴 등을 덮게 되는데 우선 더웁지 않으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비 가리개가 아닌가 생각된다.

스티로폴이나 폴리에치렌폼이 더위도 막고 비도 막을 수 있어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리므로 위에 승용차 페타이

어를 구해다가 낮이나 드릴로 구멍을 3군데 정도 내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서 눌러 주는 것이 제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보온덮개로 덮을 때는 장마철에는 계속 비가 오다보니 빗물이 스며들어 아래에까지 젖게 되므로 비닐을 속에다 넣어서 덮어주면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천막지로 덮을 때는 양 갓쪽에 구멍을 내어서 이곳에다 고무줄로 잡아 당겨 말뚝을 박아 매어주면 편리하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양봉사를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양봉을 오래 하려면 양봉사를 필히 짓는 것이 양봉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원군관리

장마철이라고는 하나 간간히 비가 안 올 때는 무더워서 분봉열도 잘 나게 되므로 로얄제리를 하지 않을 때는 군세가 너무 좋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손을 줄일 수가 있다.

계상일 경우 수평격왕판을 빼어주면 산란할 공간이 많아 오히려 내검을 적게 하고 여왕벌도 주로 위에 올라와 있어 위에 통만 내검해도 되게 되며 분봉열 또한 적게 된다. 2단 계상이상일 경우에는 계상 위에도 격왕판을 놓아주면 되겠다. 계상군에 격왕판을 쓸 경우 출입구에 벌이 뭉치지 않을 정도의 군세일 때 소문을 너무 많이 열어주면 소비 전면이 보온이 잘 안 되어 육아를 하지 않게 되므로 적절히 축소해 주어야 하겠다.

식량도 너무 많으면 분봉열이 잘 나므로 육아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주면 되겠다. 계상은 진드기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진드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 구제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대다수 양봉인들이 어떠한 약제를 하고 나면 진드기가 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다가 낭패를 입게 되는데 약제처리 후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약

제를 가지고 시험을 몇 통 해보는 것이 좋다.

4. 양봉사의 필요성

소나 돼지나 닭을 기르기 위하여는 필히 땅이 있어야 되다보니 오랫동안 축산을 하다보면 부동산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높은 편인데 인구밀도가 높아 땅이 비좁은 우리나라는 땅값은 다른 물가에 비하여 높게 오르다보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축산인들은 축산으로 벌은 소득보다 땅값 상승으로 벌은 돈이 훨씬 많은 편이다.

그런데 유독 양봉인들만이 남의 땅을 빌어서 양봉을 하다 보니 땅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상승가치가 있으면서 양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을 찾아서 금리가 낮으므로 빚을 내어서라도 땅을 사서 양봉사를 짓는 것이 재산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양봉인으로써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약간의 빚을 얻어서라도 땅을 사 놓은 사람이지만 양봉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별로 없는 편이다. 우선 양봉관리 할 때 특히나 여름철 무더위 때나 장마철에 양봉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피약별에 나가 벌 관리를 하기가 싫어서 양봉사 내에서만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편리한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비가 올 때 로얄제리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양시키는 것이나 화분 주는 것, 내검하는 것도 비를 안 맞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며 벌통도 덮어 줄 필요가 없게 된다.

벌통도 장마 때 비를 맞아 주로 썩게 되는데 양봉사에서 관리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가 있고 빈 통도 공간이 많아 이곳에 보관하다보니 편리하고 공소비도 곰팡이가 잘 안나게 보관할 수가 있다.

양봉사가 있음으로써 더욱 유리한 것이 있는

데 벌 관리가 편리하니까 이동하기가 싫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족한 밀원을 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근처에 밀원수를 심는 동기 부여가 되게 된다.

앞으로 수입 개방시대에 양봉인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밀원을 심는데 달려 있다. 임야가 6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심을 공간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길이 또한 많은 편이어서 가로수나 뚝방 같은 곳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

중국에서 아까시꿀 한드럼 가격이 50만원 내외가 되고 있어 국내 가격만 비싸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고 국내 꿀 가격을 좀 더 내려야 하는데 앞으로 벌꿀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꿀 한드럼 가격을 120 ~ 150만원대로 낮추어야 그나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밀원을 심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밀원만 심는다면 올해 생산된 정도의 잡화꿀은 매년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一千五十萬 밀원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전업 양봉인이라면 꼭 1년에 천그루 이상씩 심되 다섯 종류 이상의 밀원을 골고루 심어 10년 동안 만그루 심자는 운동인데 꼭 실천만 한다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양봉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지난 6월 24일날 수원에 있는 산림과학원에 헛개나무 꽃이 피어서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마침 칠곡에 있는 양봉인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선하여 단체로 견학을 와서 같이 보게 되었다.

5년생 정도의 헛개나무라고 하는데 벌이 분봉 나온 것처럼 달라붙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쉬나무(소동나무)이상으로 역사를 잘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필자도 처음으로 헛개나무 꽃을 보았고 역사하는 것도 처음 보았지만 역사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헛개나무 밀원을 심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조생종은 만개가 된 상태이

고 아직 꽃도 피지 않은 만생종도 있어 골고루 심는다면 한달 가까이 개화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수입개방 시대에 가능성 별꼴을 생산하여 팔 수 있는 제일 좋은 수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므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분은 정현관 박사님(017-321-2095)한테 말씀드려 견학해보면 좋으리라 여겨진다.

5. 장마철에 잘 생기는 질병

우선 석고병을 들 수 있겠는데 습도가 높다보니 평상시보다 발병율이 높게 된다. 우선 벌을 착봉을 좋게 하여 뒷장에 한 장 이상씩 여유의 벌이 있도록 관리해주고 벌이 덥지 않도록 해서 착봉을 좋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 되겠다. 잘 낫지 않을 때는 물 소독약인 크로로칼키 한 알을 뒤 공간에 비닐봉지에 담아 넣어 주던가! 요구르트병에 포르말린 원액을 1/3정도 담아 위에 망사를 씌워 고무줄로 묶은 다음 뒤 공간에 넣어 주어도 효과가 좋게 된다. 또한 사양을 매일 조금씩 시켜도 자연치유가 되게 된다.

보온덮개를 덮을 때도 가급적 3등분하여 위에만 덮어 뒷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덥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으며 저녁에 비가 안 올 때는 덮지 않는 것이 시원하게 된다.

부저병도 발생율이 높는데 부저병이 있을 경우 잘 낫지를 않게 되므로 발견 시에는 별도 관리 하는 것이 좋다.

약제사용은 봄에 물 주는 것처럼 물에 타서 공급해주면 되겠는데 양계 예방용 비율정도에 맞추어 사용하면 되겠으며 심할 경우에는 소비를 태워버리고 분무도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물에 탄 것을 그대로 분무해주면 되겠다. 마른 설탕에 테라마이신 25g정도를 혼합하여 뒷 쪽 공간에 놓아주면 약제공급이 오랫동안 되게 되어 효과적이다.

진드기도 많으면 이달부터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결국 8월달부터 날개 말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월동 들어갈 때쯤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숫벌을 깎았을 때 진드기가 많다고 생각되면 이달 중에 필히 집중관리를 해서 구제에 힘써야 하겠다.

6. 분봉군 관리

대개는 지난달에 거의 분봉군을 갈라놓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미처 다 가르지 못했을 때는 이달 중에라도 갈라야 하지만 장마철이라서 교미율이 떨어지게 되며 분봉군이 약한 것은 이달 중에 보조를 해주어야 하겠다. 봉장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에는 벌이 붙은 채로 봉충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한통에 여러장 담아가고 다른 봉장으로 가지고 가서 보조를 해주면 잘 받게 된다. 또한 한봉장에서 벌까지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막 터져 나오는 봉충을 여왕벌이 따라가지 않게 하여 벌과 같이 갈라서 한통에 여러 장 담아 놓으면 하루면 역봉이 자기 집으로 다 가게 되고 또 한 2~3일 정도 되면 유봉이 많이 터져 나와 어느 정도 균세가 되게 되는데 이때 신왕이 된 약군에 넣어주면 무왕군이다보니 되돌아오는 벌이 적어서 합군이 잘 되게 된다.

신왕이 되어 유충이 봉하기 전에 봉충이 제일 적은 시기이다 보니 이때 필히 진드기 구제를 해주어야 하겠다. 또한 신왕이 된 다음에는 벌이 계속 감봉이 되다보니 벌의 숫자를 보아서 1매 정도는 축소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육아를 시작하여 봉충이 되어서 터져 나올 때까지는 21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는 계속 감봉만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소비를 넣어 줄 필요는 없게 된다.

균세가 1~2매 정도의 약군일 때는 벌통 내부의 온도를 적은 벌 숫자 가지고 올리려다 보니 열 손실이 많아 착봉을 약하게 하면 석고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착봉도 좋게 해야 되지만 너무 벌이 약해서 1매도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할 때는 벌을 보조해주

던지 보온을 약간 해주는 것이 좋다.

분봉군도 최소한 뒷장별이 반장 이상은 되도록 관리를 해야 안전하다.

여름에도 봄처럼 보온판을 대준다든가 비닐 개포를 덮어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게 되는데 야생벌통처럼 나무개포를 덮을 때는 소광대 위가 공간이 있게 되어 열이 그 공간으로 계속 빠져서 뒷쪽으로 가게 되므로 약군은 소광대위에 비닐이나 개포 등을 덮어주는 것이 좋다. 수입된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또는 카니올란종도 석고병에 약하므로 석고병이 계속 심하여 잘 낫지 않는 봉군은 여왕벌을 국내산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카니올란이 더위를 타는 것 같으므로 가급적 스티로폴 벌통에서는 기르지는 것이 좋겠고 양지보다는 음지가 좋고 단상보다는 계상이 더 좋으리라 여겨진다.

분봉군은 역봉의 숫자가 적어 봉충이 많이 터져 나올 때는 다른 봉군에 비하여 먹이가 부족할 수가 있으므로 먹이를 충분히 주어야 하겠다.

장마철은 무밀기이어서 도봉이 잘 발생하다 보니 한 장소에서 벌을 가를 경우 식량을 주면 도봉 발생이 잘 되는데 이때는 마른 설탕을 벌통 뒷쪽 공간에 부어 주던지 도시락 같은 그릇에 담아서 한쪽에 놓아주면 도봉 발생도 안 되고 절량으로 죽지도 않게 된다. 특히 사양기가 미쳐 없다든가 설치를 못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면 편리하다.

월동식량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장마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 소비에 저장된 식량이 습도를 빨아들여 묽어지게 되어 식량이 흐르게 되므로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식량소비를 넣어 주고자 할 때는 낮에 넣어 주면 꿀 냄새 때문에 도봉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필히 저녁 때 벌이 안 나올 때쯤 사양기나 격리판 뒤에다 대어주면 되겠다.

분봉을 많이 시켜 소비가 부족할 때는 우선 구소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난 후 소초를 사양

기 뒤에다 대주었다가 다 지으면 안쪽에 증소하면 되겠다.

착봉소비 안쪽에 넣어서 지을 때는 원군 같은 경우 응봉방이 생긴다든가 소비가 늘어나서 바가지처럼 되어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사양기 뒤에다 대어주면 응봉방 없이 깨끗이 짓게 된다. 착봉이 완전히 한 장 정도 되어야 뒤에서다 짓게 되며 다 지은 이후에 증소해야 하는데 분봉군의 증소는 5~7일 정도에 한번씩 하면 되겠다.

봄철이나 아까시아때 부저병이 있던 봉군이 있을 경우 분봉군을 갈라 놓았을 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왕이 되어서 유충이나 봉충상태가 되면 이때 한 번 정도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부저병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겠다. 내검시 봉충이 깨끗이 봉하지 않고 곰보 봉충이 형성되어 있을시에는 대개 부저병이나 석고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겨 되는데 특히 유럽부저병은 자라던 유충을 뽑아내고 청소를 하여 다시 알을 가다보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보니 곰보 봉충이 보이면 미쳐 죽은 유충을 물어내지 못한 것이 있나 벌을 털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분봉군은 출입구도 적당히 열어 주어야 내부 보온에 도움을 주게 된다.

야생 벌통이나 단상군을 출입구를 높게 크게 만든 것은 전부 열어 주게 되면 열 손실이 많으므로 균세를 보아서 3~5cm 정도로 줄여 주어야 하겠다.

7. 식량공급과 화분떡 공급

동양종벌은 서양종벌에 비하여 육아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하여 산란을 많이 하지를 않게 되는데 이는 꿀이 들어오지 않을때를 대비하여 먹이소비를 적당히 조절하여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즈음처럼 계속 사양을 하다보면 이러한 본능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서양종은 여건만 좋으

면 나중에 식구가 많아 굶어 죽을 염려를 전혀 하지 않다보니 산란도 왕성해지고 육아도 잘 하게 된다.

그렇다면 벌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서양종은 좋은 육아조건만 갖추어 주면 벌을 잘 기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다.

육아의 좋은 여건은 우선 식량과 화분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은 적절한 균세가 따라 주면 되겠다. 더울때다보니 더위만 피해주면 되겠고 장마철에 비만 맞지 않게 관리해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우선 식량을 충분하게 주되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는 상태와 비슷하게 해 주는 것이 육아를 잘 하게 하는 비결이므로 매일 약간씩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양을 시켜 주면 제일 좋은 육아조건이 되게 된다.

육아하기 위해서는 물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설탕 15kg 한포에 물 한말 정도의 비율로 타서 주면 되겠다.

자동사양을 설치하였을 경우 최소한 설탕 한포에 물 7되 정도는 되어야 호스 통과가 용이하게 되지 그 이하가 되면 멀리 잘 안 내려 가게 된다.

그러나 물이 한말이상씩 타서 주게 되면 호스에서 쉽게 변질되게 되므로 매일 자주 출때는 이 정도도 괜찮지만 1주일단위로 한번씩 출때는 호스에 있는 것이 변질 되므로 물을 7~8되 정도씩만 타서 주는 것이 좋다.

식량은 항상 밀방정도는 차 있을 정도로는 주어야 벌들이 육아를 잘하게 된다. 가급적 봉개는 시키지 않는 정도가 좋은데 봉개를 시키고 나면 그 식량은 가급적 파서 먹을 려고 하지 않고 저장하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육아면적을 늘리려고 할 때도 최대한 봉개를 뜯어내지 않게 됨을 볼 수가 있다.

화분떡 공급

장마철에 아무리 많은 화분이 저장되었더라도 장마기간 동안 대부분 먹어치워 모자라게 되는데 벼 화분이 들어오는 8월 초순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화분이 모자라게 된다. 강원도나 젖소를 많이 기르는 지역으로 사료용 옥수수가 많은 지역과 광대싸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름 화분 부족 때문이다.

화분떡은 수입된 자연화분 그대로 주어도 되지만 경제성을 따져야 하므로 대두분이나 메주가루나 효모등을 절반 정도 끌고루 섞어서 화분떡을 만들어 주어도 무방하게 된다.

화분은 한번에 많이 주어서 일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조합에서는 화분떡을 만들어 팔고 있으니 필요한 조합원은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

8. 밀원수 관리

봄철에 밀원수 공급한 량이 한국양봉농협에서 약 75,000그루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지원하여 다른 단위농협이나 축협에서 공급된 밀원수가 45,000그루 정도 되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사서 심은 밀원수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밀원수를 심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잘 가꾸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 최소한 3년 정도는 가꾸어야 하겠는데 우선 환삼덩굴이나 새삼 또는 칠펍굴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묘목을 쓸어뜨린다든가, 그들이 저서 고사시키게 되므로 이를 낫 가지고 다니면서 이달 초순과 하순쯤에는 필히 깎아 주어야 하겠다.

여름철에 적어도 3회 정도는 깎아 주어야 하겠는데 때를 놓치게 되면 나무 전체를 감아버려 일손이 많이 가게 된다. 토양이 박토라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은 복합비료를 사다가 나무 가지 끝 정도의 거리에 땅을 두 군데 정도 파고 한 곳에 한 줌정도씩 묻어주면 잘 자라게 된다. 너무 뿌리 가까운 곳에 비료를 주게 되면 죽어버리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다. 쉬나무 같은 것은 나무줄기를 둥그렇게 꺾질을 감아먹는 벌레가 잘 생기므로 이러한 것이 발견되면 잡아주어야 하겠다.

줄기 꺾질을 한바퀴 감아먹으면 위에 있는 가



지는 전부 죽어버리게 된다.

헛개나무는 심식충이라고 하여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는 벌레가 있는데 살충제를 뿌리고 구멍 있는 곳에 황토를 발라주면 된다.

가지도 원줄기를 어느 정도 기르면서 밑에는 가지치기도 해 주어야 하는데 1년 생일 경우는 원줄기만 잘 자라도록 해 주고 가지치기는 2년 정도 부터 해 주면 되겠다. 장마철이 되면 밀원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있는데 요즘 가로수를 벗어나서 심은 곳에 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 하나 가지고 가서 빗지가 떨어 진것을 쓸어 담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와 과육을 씻힌 다음 물로 씻어서 제거한 다음 시간이 있을 때 산에 다니면서 뿌려주면 내가 필요한 벗나무 밀원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내 땅도 없이 심을 것도 없이 쉽게 만들 수가 있다. 벗나무는 반음수라서 소나무 속에서도 잘 자라게 된다. 많은 곳에 가면 한말이상도 주을 수가 있는데 비가 와서 씻겨내려 가기 전에 받아야 한다. 지난달 하순부터 개화하여 이달에도 만개가 피어있는 스위트 크로버가 있는데 이달 말경이나 8월 초순쯤에는 스위트 크로버 씨앗도 받을 수 있는 적기가 되겠다. 영월의 동강 근처에 가면 자생하는 곳이 있으므로 씨앗을 받아다 봉장주위에 뿌리되 풀이 있는 곳에 뿌리면 죽게 되므로 하천 제방 같은 데 풀이 없는 모래가 많은 곳에 뿌려 가을에 유채처럼 발아가 되어야 내년엔 꽃이 피게 되며 발에 뿌릴 때는 발을 갈고 9월 중하순 경에 뿌려 싹이 어느정도 자라도록 해야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이 적게 된다.

9. 거미 제거

요즘 9월달쯤 되면 말벌 보다도 더 피해를 주는 것이 거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양봉사를 지었다든가 한 장소에 매년 벌을 놓게 되면 먹이 사슬이 좋아져서 거미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우선 벌통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잡아가면 되겠는데 8~

9 월에 잡는 것 보다는 이달에 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게 된다. 왜냐하면 거미는 한 봉지처럼 생긴데서 알이 부화하여 처음에는 한 곳에 많이 서식하다가 점차 커지면서 먹이를 찾아 멀리 가게 되므로 한 곳에 집결해 있을 때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거미는 나무가 살아있는 곳 보다는 죽어있는 나뭇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죽은 나뭇가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곳에서 부화하여 조그마한 거미새끼가 집단으로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씩 있게 됨을 볼 수가 있다. 이때 살충제 농약을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려주던가 아니면 가스토치 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면 쉽게 제거시킬 수가 있다.

좀 더 커 가지고 혼자 떨어져 살 때쯤에는 얇은 판자 가지고 때려잡으면 되겠다.

가을철에 말벌피해보다도 오히려 거미가 많은 곳은 거미줄에 걸려 죽은 것을 헤아려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게 됨을 볼 수가 있다.

현대자동채밀기

현대자동채밀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에서 채밀기를 24개월 보증기한으로 판매 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무상으로 A/S를 해드리다 보니 영세기업으로선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지난 아카시아 시즌부터는 보증기한이 지난 채밀기에 한해 출장비와 A/S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객님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보증 기한이 지난 고객님을 회원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의 년 회비만으로 일정부분의 A/S를 무상으로 해드리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사에 문의 하시면 고객님께 약관을 보내 드리겠습니다.